GS리테일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영업지원

1. 지원동기

gs25에서 근무를 하면서 점장님의 부재로 매장운영에 난항을 겪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고부족일 때가 다반사였고, 알바생들은 상품을 빼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점장님 허락 하에 제 스스로 PDA·CRT, 발주, 재고관리를 독학하였고, 이후 알바생교육, 신상품진열, 행사·홍보물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의 단 1%의 강요도 없이 제 스스로 매장운영을 도맡아 하게 된 계기는 유통에 대한 관심과 이 일이 제 길이라는 적성, 무엇보다도 이 일에서 ‘즐거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에서 6년간, 직영점에서 반 년가량  근무하면서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고, 그 꿈을 꾸게 해 준 gs리테일에서 그 뜻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몸소 경험하면서 ‘이런 점이 gs의 강점이구나, 저런 점은 보완하면 더 좋을텐데.’라며 느낀 부분들을 ‘GS리테일의 사람’이 되어 강화·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2. 성장과정 및 학창시절

저희 부모님께서는 ‘네 인생은 네 것이니,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성적에 관여하지 않으셨고, 그런 모습이 자극이 되어 제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잦은 축제, MT, 술자리가 제 발목을 잡아 입학 후 첫 학기에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휴학을 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님께서는 못난 저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 1년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복학했고 과1등으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보답했습니다. 유흥에 취해 방황하며 꼴등했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었고, 꼴등에서 단 번에 1등으로 탈바꿈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 날의 부끄러운 경험이 저를 쉽게 굴복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었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gs리테일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3. 포부

첫째, '소통'과 '관계'를 지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귀담이 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맹점주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 협력하고 상생하겠습니다. 최근 가맹점주에 대한 기업의 횡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GS25에서 가맹점주와 본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가졌다는 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제가 지향하는 경영철학과 부합하는 기업임을 확신했습니다.

둘째, GS리테일을 프랜차이즈 대표 모델로 성장시키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안주하지 않고 실전경험을 쌓으며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끊임없이 사고하며 발전지향적인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만족도1위, 취업자의 입장에서 취업선호도1위,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드파워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습니다.

4. 성격 장단점

장점은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알바를 하면서 알바를 단순히 용돈벌이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매장이 동종 업계 최고의 서비스와 매출을 자랑하는 매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 나를 고용해준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일 이상의 몫을 해내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와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습니다.

단점은 진로가 급작스럽게 유통업계로 바뀌면서 아쉬운 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 때 까지만 해도 유통이나 마케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유통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전문적으로 실력과 소양을 닦아 온 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오랜기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론 이상의 현상 경험을 통해 그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신합니다. 더구나 이론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통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를 채용하여 제게 1만큼의 업무를 알려주신다면 저는 부단히 노력하여 9를 따라잡아, 절대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5.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함은 곧 자기 자신에게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말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말자.”는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령 타인의 지갑과 핸드폰을 주워도 ‘내가 가질까?’라는 단 1초의 망설임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니 그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은 전혀 없고, 주인이 돌려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뿌듯함에 제가 더 즐겁습니다. 이 자소서를 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조언하길 최대한 과장하고 포장하라, 합격 자소서를 많이 읽고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장으로 진실한 글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타인의 자소서를 참고하는 것도 그 글에서 좋은 구절을 마치 내 것인 양 갖다 쓸 수 있기에 이 역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100%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 제 힘으로 쓴 이 자소서에 제 정직함, 진중함이 잔뜩 묻어나길 바랍니다.

|  |
| --- |
|  |